

2020년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 1,542억 달러 성장 전망

원료, 제품, 서비스 산업 간 연계 확대로 시너지 효과내야

글_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이준혁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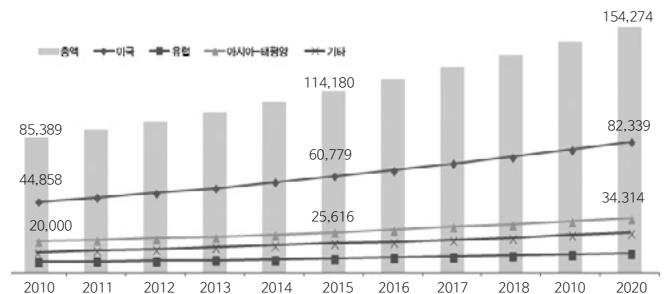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보건의료 분야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노 인성 질환, 만성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UN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93억 명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은 2050년까지 고령인구 비중이 약 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 라 건강한 수명연장은 향후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심화, 환경오염 증가는 조류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의 발생 확률을 높이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 만성 난치성 질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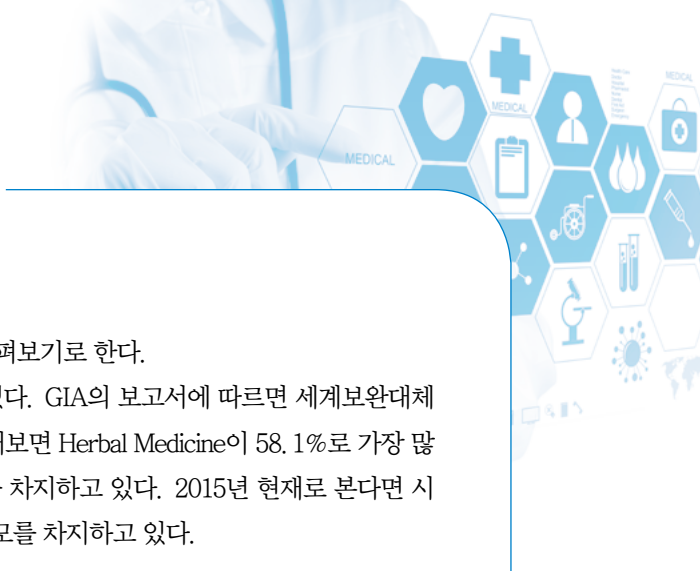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과 경제 수준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의료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얼마 나 살 것이냐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관심, 즉 생존과 수명연장 자체보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기존의 의료가 충족시켜주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수요 자는 충족되지 않은 서비스를 보완해 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기존에는 변방에 있 던 전통의약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의약 시장의 특성 및 세계 시장 동향

한의약에 대해서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정의 부분이다. 한국의 전통의학이라는 한의학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글로벌 환경 속에서의 비교·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다. 세계 시장에서의 한의약에 대해 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통의약과 보완대체의학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각국 의 전통의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서로 상이하다. 또한, 한 국가의 전통의약이 다른 나라 에 이식될 때는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식된다. 따라서, 한의약에 대한 세계시장을 논할 때는 전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을 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기 반으로 먼저 세계 전통의약의 전반적인 시장 현



[그림 1]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 현황 및 전망(단위 : 10억 달러)



황과 국가별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약의 정책 및 산업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의약을 비롯한 세계보완대체의약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G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완대체의약시장은 2020년 1,542억 7,4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시장을 세분화해보면 Herbal Medicine이 5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의학과 동종요법이 각각 29.4%, 8.8%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현재로 본다면 시장규모는 1,141억 달러이며, 미국시장이 607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동향

미국

미국은 오바마케어법을 통해 대체의학 시장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4년 1월 전 국민대상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법을 제정하면서 대체의학기술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여진다. 오바마케어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에도 미국 국민의 30%이상이 대체의학을 경험하였고, 병원의 40% 이상이 대체의학 관련 기술을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국민들의 사용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미국보완통합의학연구소(NCCIH)에서 수립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전략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가지는 심신치료법 등 치료기술에 대한 연구 발전, 보완대체의학 천연물 제품에 대한 연구, 보완대체의학의 실생활 접목, 과학적 연구역량 향상, 과학적 근거의 대중적 확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전략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근거확보와 대국민 홍보가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치료기술과 천연물제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

중국은 중의약의 현대화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 5년마다 중의약 사업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2014년 7월에는 중의약의 법률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중의약법을 국무원에 상정하였다. 크게 서비스, 제품 등 산업 부문과 자원, R&D 등 인프라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03년 28만개의 중의 병원 병상수는 2012년까지 61만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의약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이 늘어남에 따라, 중의약 이용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중의약이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병종을 발굴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임상과 진료에 활용을 높여 나가고 있다. 중국중의과학원이 선정한 우세병종 103개 중 51%인 52개의 전문과 개설이 추진되었으며, 최근 중풍, 요통, 견비통 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중약제품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높다. 중국은 자국의 국내 시장이 가장 큰 중의약시장으로 볼 수

〈표 1〉 중국 중약 수출 비중

분류	수출액점유율(%)
총계	100
중약류	5.24
보건품	0.46
추출물	2.54
중성약	0.52
중약재와 음편	1.72

있다. 하지만,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원료형 상품 중심에서 완제품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보건의료상품 수출액 중에서 중약은 5.2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중약재와 음편, 추출물이었다.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약품 등의 완제품 개발에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2014년 12월 현재 220개의 중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현대적인 제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중약자원 부문이다.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약 보호품종제도, 약용식물원 건설, 중약자원 일제조사를 통해 중약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특허 및 상표등록 등 기존 제도와 중의약에 특화된 제도를 통해 중의약 관련 전통의약지식 보호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의약 R&D는 국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다. 중의약 R&D 예산지원 규모는 2002년 대비 2012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약재 품질에서부터, 표준, 유효성과 안전성, 제형화 및 표준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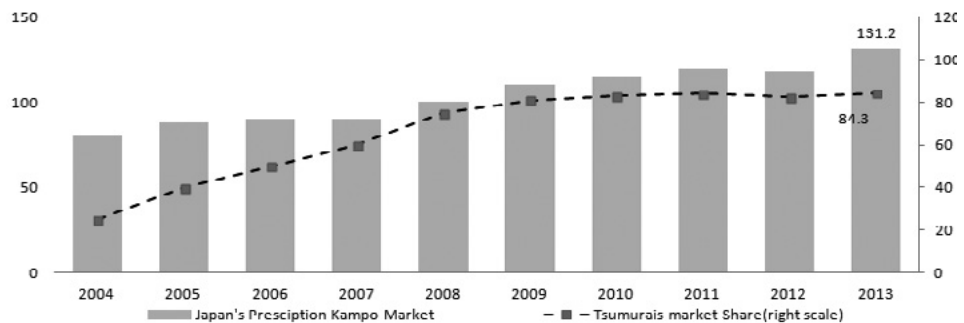
〈표 2〉 중국 연도별 중의약 R&D 투자 연구비 현황(단위: 천 위안)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의 국가급 과학연구기관	151,763	130,659	171,301	115,124	224,461	277,386	339,960	406,405	352,288	431,719
성단위급 중의 연구기관	109,722	120,825	115,095	208,237	124,038	160,667	238,194	341,722	389,943	421,325
지역, 시급 중의 연구기관	11,952	10,205	14,015	14,913	2,631	6,830	26,281	51,781	54,670	58,782
합계	273,437	261,689	300,411	338,274	361,130	454,883	604,435	799,908	796,901	911,826

※ 자료 : 한의약연감2013(한의약연감발간위원회, 2014)

일본

일본은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중국과는 다른 의료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일원화된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의학의 진료와 처방이 통합된 의료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전통의학인 캠포(Kampo)는 기존 의료체계에 통합되어 있으며, 의사가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처방할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한의학에 대한 활용은 매우 높은 편으로 의사 90%의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한 경험이 있으며, 150개의 한약처방이 건강보험급



※ 자료 : annaul report(zsumura,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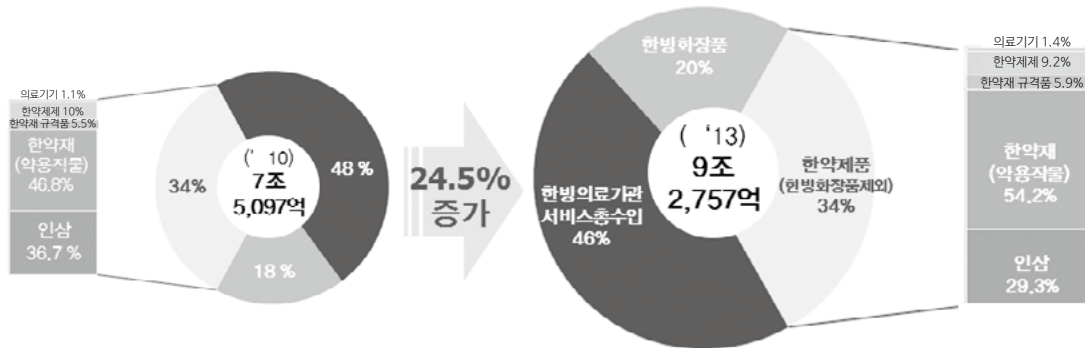
[그림 2] Tsumura TOP10 products by sales amount

여 대상이며 900여 개의 한약제제가 시판 중이다.

일본의 한약시장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약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으며,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화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일본 내 한약처방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1,312억 엔이며, 내수시장의 84.3%를 차지하는 쓰무라 제약은 아시아, 유럽 등으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제약회사가 존재함으로써 연구개발이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의 학과 캠퍼의학의 결합을 통한 의약품 개발도 민간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국내 동향

한국의 한의약산업은 외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하고도 2010년 7조 5,000억원 규모에서 2013년 9조 3,000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제품이 34%, 한방화장품이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한의약연감2013(한의약연감발간위원회,2013) 및 대한화장품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3] 국내 한의약관련 시장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외형적인 면에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본다면 각각의 분야별로 온도차이가 있다. 먼저 한방 화장품의 경우 한류의 영향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한의약에 기반한 제품의 경우 정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의료제품의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인 의료기기와 한약제제의 경우 규모와 성장성 면에서 미미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우 의료기관 총수입이 증가하는 반면에 그 중 건강보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점 및 정책제언

국내의 한의약산업의 경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이다. 전체 한의약산업에 있어서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또한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보험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한약제품 산업 내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원재료 형태인 한약재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그것도 인삼에 편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한약제제와 의료기기의 경우 시장규모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어려워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책이 없다. 마지막으로, 산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원료, 제품, 서비스 산업이 산업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점이 부족하다.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제품의 확대, 원료산업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나, 현재는 각각의 산업이 별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산업간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간 연계를 위해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의 확대와 한방의료기기 정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간 연계를 통해 한약제제와 한방의료기기 시장을 확대시켜야 한다. 보험제도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제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한약제제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본다면,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한약제제 시장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을 다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수요시장을 넓히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범위 확대보다는 시장세분화를 통한 포지셔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약이 장점을 가지는 치료분야와 근거를 지속적으로 쌓아서 특정질환, 또는 특정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킬러 앱(killer application)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또한 필수적이다.

맺음말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약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게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한국 또한 한의약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산업구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서비스 산업 편중, 제품산업의 취약, 산업간 연계 부족 등 몇 가지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산업 내에 포함된 여러 산업들의 개별 육성도 중요하지만, 개별산업이 선순환할 수 있는 가치사슬로 재구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보험 등의 제도 개선과 정책자금 지원 등 정부의 역할과 산업부문간의 협력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보건산업 네트워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보건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전세계가 주목하는 보건혁신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무한활동을 기대해 주십시오.



보건산업강국 대한민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보건산업 글로벌 진출 Hub

보건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과 다양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보건산업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술(HT) 혁신 Leader

국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함으로써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함께하는 성공 Partner

우수기술 발굴, 투자유치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체 기술 경영 지원, 제품(기술) 인증,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보건산업체의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 육성 Think Tank

정부의 효율적인 보건산업육성 정책 수립 및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최신의 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연중 상시 접수)